

“섣부른 전두환 사면에 내란 반복…비극적 역사 더는 안돼”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엄중 처벌 요구, 왜?

반성없는 윤석열 등 ‘공직 엘리트’ 엄중한 처벌로 본보기 삼아야
5·18 단체·노동계 등 “재판부 ‘사면 없는 단죄’로 민의 반영하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구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씨보다 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을 획책한 전씨의 처벌 이후에도, 현정 수호 책임자로서 역사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역할을 하기는 커녕 현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를 똑같이 반복했다는 점에서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 엘리트’들이 내란 행위를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동조한 점 등으로 엄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엄중한 처벌로 역사에 본보기를 남겨야 한다는 얘기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윤 전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단죄한 역사를 무시하고 ‘공직 엘리트’들이 내란을 획책해 비극적 역사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다.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쿠데타에 의한 현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 특검팀 설명이다.

검찰이 사형 이유로 짚은 윤 전 대통령의 행적은 과거 전씨에 대한 1심 재판 구형과 겹쳐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996년 검찰이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사형을, 노태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

했을 당시 공개한 ‘논고 요지’에서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연금, 계엄군 병력의 국회 점거,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포고령 제10호 발령 등을 통해 국회를 사실상 해산시켰다”는 점을 사형 구형의 핵심 요인으로 설명했다.

또 전씨가 국민과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상 최고 원리 중의 하나인 국민주권주의에 대해 도전한 점, 국민의 군대인 계엄군을 이용해 민주화라는 범국민적 열망을 짓밟으면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자행한 점 등도 구형 요인으로 언급됐다. 논고 요지에는 전씨가 정의와 불의의 가치관을 전도시켜 사회를 혼란케 만들고 전혀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당시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내란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노씨에 대해서는 내란 중 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인정됐지만, 구형보다 적은 징역 22개월이 선고됐다.

특검의 ‘사형’ 구형과 함께 과거 전씨, 노씨에 대한 선부는 ‘사면’이 반성 없는 내란의 반복으로 이어졌다. 점을 내세워 일각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사면 없는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온다.

대법원이 지난 1997년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며 전씨 등을 감형해 줬고, 같은 해 전씨 등이 구속 이후 2년 만에 특별사면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점 등이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쿠데타를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져다 줬다는 분석이다.

이에 5·18 당시 계엄의 아픔을 겪었던 5·18 관계자들부터 시민단체, 노동계 등 각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절대 사면해줘



1996년 8월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12·12 및 5·18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오른쪽)·노태우가 손을 잡고 재판장을 응시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확실한 처벌이 이뤄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사면받지 못하도록 뭇을 박아 두 번 다시 국민을 등지고 내란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도 “좌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역사

에 기록으로 남겨둬야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국가 폭력의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재판부는 오직 사형만을 선고해야 한다”며 “국가권력을 친밀하고 이를 사유화해도 괜찮다는 시각을 가진 집단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선고 임박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방임한 ‘공직 엘리트’들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에 기dan한 윤석열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 전 국무총리의 경우 오는 21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내란 관련 재판 중 가장 빠른 선고기일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가의 2인자이자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고 치유해 12·3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는 등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이 전 장관은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이원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로 예정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 해역 저수온 ‘경계’ 상향…양식어민 긴장

도, 양식어류 출하·보온시설 점검 등 피해 예방 나서기로

전남 해역 곳곳에 저수온 위기 경보가 상향되면 서양식장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오전 10시를 기해 합동만, 득량만, 가막만, 여자만을 비롯한 11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하고 이날 낮 12시부로 전국적으로 저수온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위기경보 ‘관심’, 12월 31일 위기경보 ‘주의’를 내린 이후 한 단계 높인 조치다.

저수온 위기 단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저수온 주의보·경보 해역 발표 확대와 연동돼 발표되며, 관심(한국 대책기간)→주의(예비특보 발표)→경계(주의보 4개 이상)→심각1단계(주의보 13개 이상·경

보 6개 이상)→심각 2단계(경보 28개 이상) 순으로 발표된다.

주의보는 수온이 4도에 도달하거나 전일 수온 대비 3도 이상 하강한 지역, 경보는 수온 4도 이하가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전일 수온 대비 5도 이상 하강한 지역에 발표된다.

해수부는 저수온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저수온 발생 현황과 피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남도 현장대응반도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양식어류 출하, 보온시설 점검 및 가동, 사료 급여 조절, 긴급 방류 등을 지도해 저수온 피해 예방

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앞서 겨울철 양식수산물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조치, 집중관리, 재해대응, 복구지원 등 네 단계로 나눠 중점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사전조치로 수온유지를 위한 히트펌프(1303㎾), 양식어류 면역증강제(191t) 사전공급 등을 지원하는 한편, 조기 출하 등 예방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양식 수산물의 안정적인 겨울나기是为了 마련된 ‘월동구역’ 이동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수온으로 인한 전남 지역 피해는 여수와 고흥 지역에 집중돼 돌류, 송어, 조기, 부세 등 총 250여ha, 908만마리, 201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무안공항 폐쇄 1년…여행업계에 저리 응자

전남도, 26일까지 신청…운영자금 최대 6억 지원

제주항공 참사로 무안공항이 폐쇄되면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여행업계를 위한 응자 지원이 이뤄진다.

전남도는 오는 26일까지 지역 여행사와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응자’ 신청을 받는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관광숙박·여행업·관광식당·여행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되면 오는 2월 26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광은행 등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응자 실행이 이뤄진다. 대출금리는 1%다.

전남도 오미경 관광과장은 “무안공항 폐쇄 장

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 관광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전남도와 시·군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조성한 600억원으로 운영된다. /김지율 기자 dok2000@

**광주일보 74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2026-1 광신대학교 평생교육 PROGRAM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2026. 1. 12.(월) ~ 2. 13.(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중앙도서관 1층 교학처),
이메일 신청(gsu23417@naver.com)

교육문의

062)605-1023, 1063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6

● 지원자격 : 세례교인 이상으로서 담임 교역자 추천을 받은 자

*단, 전문인 사역자 과정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문의 062)605-1023, 1063

3월 초 개강

색채심리상담 전문가 양성과정 _화 9:00

아로마 테라피스트 과정 _월 10:30

파크골프 지도자 2급 과정 _금 9:00 / 토 9:00

흥미만점 영어회화 _금 14:00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www.kwangshin.ac.kr

2년 4학기 [주 2일 야간]
(월·대면/화·비대면)

여전도사 과정

중직자 과정

평신도 사역자 과정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